

## 청소년활동몰입 관련요인에 대한 구조분석\*

박정배\*\* · 송병국\*\*\*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 진행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청소년활동몰입을 설명하는 종합 모델을 구안하고, 청소년활동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46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417매가 회수되었으며,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301매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AMOS 4.0을 사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5%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환경요인은 자기목적적 성격에 직접적인 정적영향( $\beta=.61$ )을 갖고 있었다.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변인은 동료관계( $\beta=.25$ ), 가정환경요인( $\beta=.21$ ) 그리고 지도자관계( $\beta=.14$ )였으며, 매개변인인 자기목적적 성격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진행내용요인( $\beta=.40$ ), 활동진행방법요인( $\beta=.37$ ), 자기목적적 성격( $\beta=.21$ ), 주관적 안녕감( $\beta=.10$ )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가정환경요인( $\beta=.16$ ), 지도자관계( $\beta=.01$ ), 동료관계( $\beta=.02$ )는 청소년활동몰입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몰입, 자기목적적 성격, 주관적 안녕감

\* 이 논문은 박정배의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하였음.

\*\* 순천향대학교 강사

\*\*\*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 I. 서 론

청소년활동은 실생활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험중심의 활동이다(권일남 외, 2007). 또한 학교교육과 같이 외부강요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자각적 자발성에 기초한 자기도야인 동시에 자유로운 이성인지에 기초한 교육적 활동이다(김진호 외, 2009). 청소년활동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동을 선택하여 결정하며, 나아가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증진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 참여의 동인(motive)이 되기 때문이다(김진호, 2004).

청소년활동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활동 참여를 통해 예상되는 목표 달성과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 참여과정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진행되는 활동 속에 직접 관여하면서 나타나는 목표와 보상의 관점에서 청소년활동의 참여과정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는 의도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프로그램을 계획하지만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할 때는 개개인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지하기 위해 목적과 목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활동 참여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목적과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이 가능한 동기이론이 Csikszentmihalyi(1975; 1990; 1997)가 제안한 ‘출현동기이론(emergent motivation theory)’이다. 일반적인 동기이론과는 달리 출현동기이론에서는 어떤 행동은 미리 고안된 외재적 보상이나 사전에 정의된 목표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도전과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후 생기는 잠재적 보상과 만족감에 의해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목표와 보상이 행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함의하는 ‘플로우(flow)’ 혹은 ‘깊은 흐름(deep-flow)’ 활동이라고 붙여졌으며, 한국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몰입’ 혹은 ‘플로우’로 번역되는 출현동기이론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Csikszentmihalyi, 1975).

몰입은 Csikszentmihalyi(1975)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최적의 심리상태이다. 몰입은 도전(challenges)과 기술(skill)의 함수관계, 즉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활동의 수준

과 자신의 인식하는 능력 간의 함수관계로 설명이 가능하다(Csikszentmihalyi, 1990). 그의 이론에 따르면 도전수준과 자신의 능력 수준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몰입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에 비해 도전의 수준이 높으면 불안(anxiety)을, 도전에 비해 자신의 능력수준이 높으면 지루함(boredom)을 경험하게 된다. 몰입경험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 참여를 유발할 뿐 아니라 창조성(creativity), 즐거움(enjoyment), 최상 경험(peak experience), 능력개발(talent development), 자기 존중감(self-esteem) 등을 경험하게 해준다(Csikszentmihalyi, 1993).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의 상황에서 몰입을 경험한다면 활동 그 자체는 매우 즐거울 것이며, 청소년들은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활동 그 자체에 집중하여 만족과 기쁨,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과정에서의 몰입현상을 이해하고 청소년활동몰입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 주제이며, 청소년활동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참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학습상황에서 청소년들의 학습몰입경험을 이해하고 학습몰입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마정희, 2010; 유은주 외, 2010; 이미현, 2003; 이숙정, 2010; 이은주, 2001; 이화선, 2010), 청소년활동 과정에서 몰입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김진호(2008)에 의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몰입경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그의 연구는 청소년활동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활동과제 특성으로 한정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상황을 고려한 요인, 예컨대 가정환경요인이나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몰입의 개념을 청소년활동상황에 도입하고, 몰입이론에서 일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개인 특성요인과 활동특성요인 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청소년활동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활동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자기목적적 성격 및 주관적 안녕감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유의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가?

둘째,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자기목적적 성격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있는 영향력을 가지는가?

셋째,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가정환경요인은 자기목적적 성격에 유의있는 영향력을 가지는가?

넷째,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가정환경요인, 지도자관계 및 동료관계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있는 영향력을 가지는가?

다섯째, 청소년활동 참여자가 경험하는 활동과제특성요인(활동내용요인, 활동진행방법요인, 지도자관계, 동료관계)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유의있는 영향력을 가지는가?

여섯째,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가정환경요인, 지도자관계 및 동료관계가 청소년활동몰입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자기목적적 성격 및 주관적 안녕감은 그 효과를 유의있게 매개하는가?

## II.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적 모형 설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설적 모델을 구안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목적적 성격 및 주관적 안녕감과 청소년활동몰입의 관계에서 Csikszentmihalyi(1975; 1988; 1990)는 몰입경험의 개인차를 야기하는 개인의 성격을 자기목적적 성격이라 명명하였으며, 이화선(2010)은 자기목적적 성격은 학습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다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쪽으로 동기를 유발하여(박근수, 2007), 심리적 안녕감은 학습몰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마정희, 2010). 이상의 연구에 기초해서 자기목적적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인식은 물질적 측면과 같이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같은 성격적 측면과 관련이 있으며(Costa & McCrae, 1980; Heady & Wearing, 1989), 청소년의 성격 중 외향성은 안녕감을 증가시키고 신경증적 경향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홍순, 2006; 임미향 외, 2006)에 기초해서 자기목적적 성격이라는 성격특성은 주관적 안녕

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정환경요인과 관련해서 자녀들에게 후원과 자극을 모두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Rathunde, 1988; 1989; 1996; 2001),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이명순, 2006), 몰입을 쉽게 경험하도록 하는 성격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Csikszentmihalyi, 1990). 또한 살아가면서 몰입경험을 남보다 많이 할 확률이 높다(유은주, 2010; Csikszentmihalyi, 1997). 이상의 선행연구에 기초해서 가정환경요인은 자기목적적 성격, 주관적 안녕감 및 청소년활동몰입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활동내용요인과 관련해서 김민성(2009), 김진호(2008) 등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활동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가치 있게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활동 수행 중 만족감을 느끼고 열정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김진호(2008), 이성진 외(2008), Cole, Bergin 와 Whittaker(2008) 등은 활동과제에 대한 흥미는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 기초해서 개인적 가치와 개인적 흥미를 포함하는 활동내용요인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의미있는 정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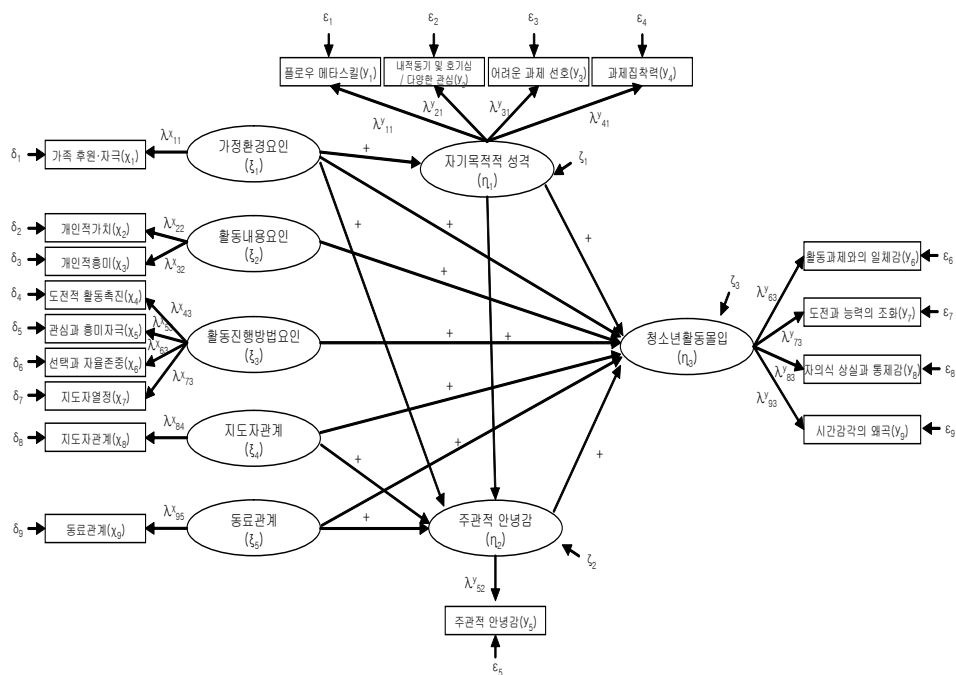
활동진행방법요인과 관련해서 Csikszentmihalyi와 Schneider(2000)는 참가자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활동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진호(2004), Csikszentmihalyi(1990), Stipek(1993) 등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Stipek(1998)은 활동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는 것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최윤진(1992), Apps(1996), Cruickshank 등(1980)은 지도자의 열정은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 기초하여 활동진행방법요인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학교교육 상황에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문은식, 2009), 수업참여행동, 학습성취, 학습몰입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선행연구(이숙정, 2010; Midgley et al., 1989; Skinner & Belmont, 1993)에 기초하여 청소년 지도자와의 긍정적 관계는 주관적 안녕감과 청소년활동몰입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지지가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Chou, 1999), 또래와의

긍정적 대인관계 및 학급풍토가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Wentzel & Watkins, 2002; 민상기·나승일, 2007; 이숙정) 기초하여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긍정적인 동료관계는 주관적 안녕감과 청소년활동몰입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청소년활동몰입 관련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자기목적적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자기목적적 성격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환경요인은 자기목적적 성격, 주관적 안녕감 및 청소년활동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활동내용요인과 활동진행방법요인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지도자관계와 동료관계는 주관적 안녕감과 청소년활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활동몰입 관련 요인에 대한 가설적 인과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청소년활동몰입 관련요인에 대한 가설적 인과모형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표집방법은 할당표집법(quota sampling)을 적용하여, 12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선정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숙박형 프로그램과 정기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각각 유사한 비율을 갖도록 표집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되었다. 발송된 설문지는 460 매였으며, 이 중 417매(회수율 90.7%)가 회수 되었다. 코딩과정에서 설문작성이 불성실한 설문지 및 미응답 문항이 있는 설문지 78부를 제외한 339명의 응답을 원자료로 확보하였다. 수집된 원자료 중 28명의 자료가 이상치(outlier)로 판별되어 분석과정에서 제거되었으며, 총 30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 2. 측정도구

##### 1) 독립변인

##### (1) 가정환경요인

개인의 최적발달을 이끄는 복합적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이화선(2010)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가족 후원·자극 설문지(Support and Challenge Questionnaire: SCQ)를 사용하였다. SCQ는 우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적발달의 예측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Chikszentmihalyi, Rathunde 그리고 Whalen(1993)에 의해 개발된 24문항의 복합가족 설문지(Complex Family Questionnaire: CFQ)에 8개 문항을 추가 및 수정하여, 신뢰도가 높고 보편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Rathunde(1996)에 의해 개발된 검사이다. 이화선(2010)은 ‘예’, ‘아니오’로 이분화 되어 있는 척도를 리커트 4점 척도로 수정하고, 부정문항을 긍정문항으로 수정하는 등의 변화를 줌으로써 좀 더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28개 문항으로 된 가족 후원·자극척도를 제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0.945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에서는 0.940으로 나타났다.

## (2) 활동내용요인

활동내용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적 가치와 개인적 흥미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개인적 가치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활동내용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김진호(2003)가 성인교육자의 학습내용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개인적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은 3개의 긍정문항(1, 3, 4번)과 1개의 부정문항(2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비조사 결과 부정문항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내 관심사와 상관없는 것들이 많다'의 경우 문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번 문항을 제외한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예비조사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0.748, 본 조사에서는 0.792로 나타났다.

개인적 흥미는 활동내용의 개인적 흥미와 호기심을 측정하는 것으로 National Institute on Out-of-school Time과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2005)에서 개발한 방과 후 청소년활동프로그램평가척도(Assessment of After-school Program Practices Tool: APT)중 개인적 흥미와 관련한 3개 문항을 번안하여 김진호(2008)가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예비조사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0.874, 본 조사에서는 0.832로 나타났다.

## (3) 활동진행방법요인

활동방법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도전적 활동촉진, 관심과 흥미자극, 선택과 자율존중, 지도자 열정의 네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도전적 활동촉진은 청소년지도자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활동과제를 부여하거나 활동 진행속도를 조절하여 활동 진행과정에서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전적 활동촉진을 측정하기 위해 Lam, Pak, 그리고 Ma(2007)가 학생이 지각한 수업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수업환경 평가 척도(Motivating Instructional Context Inventory: MICI)에서 수준에 맞는 도전적인 수업(challenge)을 측정하기 위한 4개 문항을 청소년활동 진행 상황에 적합하도록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예비조사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0.886, 본 조사에서는 0.855로 나타났다.

관심과 흥미자극은 청소년지도자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을 흥미롭게 전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관심과 흥미자극의 측정은 Lam, Pak 그리고 Ma(2007)가 학생이 지각한 수업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수업환경 평가 척도(Motivating Instructional Context Inventory: MICI)에서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 자극(curiosity)을 측정하기 위한 4개 문항을 청소년활동 진행 상황에 적합하도록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예비조사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0.813, 본 조사에서는 0.818로 나타났다.

선택과 자율존중은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선택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Lam, Pak, 그리고 Ma(2007)가 학생이 지각한 수업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수업환경 평가 척도(Motivating Instructional Context Inventory: MICI)에서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성 격려(autonomy)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청소년활동 진행상황에 적합하도록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예비조사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0.793, 본 조사에서는 0.839로 나타났다.

지도자 열정은 청소년지도자가 활동내용 및 지도행위에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도자 열정의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Larkins, McKinney, Oldhan-Buss, 그리고 Gilmore(1985)가 개발한 교사열정 측정도구를 성인 학습에 참여하는 교육자의 열정을 측정하기 위해 김진호(2003)가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총 5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0.741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에서는 0.863으로 높게 나타났다.

#### (4) 지도자관계

지도자관계는 청소년활동 진행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지도자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New York state After-school Network(2005)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질 평가도구(Program Quality Self-Assessment: QSA)와 National

Institute on Out-of-school Time과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2005)에서 개발한 방과 후 청소년활동프로그램평가척도(Assessment of After-school Program Practices Tool: APT)에서 4개의 관련문항을 번안하여 김진호(2008)가 지도자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총 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0.875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에서는 0.852로 나타났다.

#### (5) 동료관계

동료관계는 청소년활동 진행과정에서 함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National Institute on Out-of-school Time과 Massachusetts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2005)에서 개발한 방과 후 청소년활동프로그램평가척도(Assessment of After-school Program Practices Tool: APT)에서 4개의 관련문항을 번안하여 김진호(2008)가 동료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총 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0.649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에서는 0.772로 나타났다.

### 2) 매개변인

#### (1) 자기목적적 성격

자기목적적 성격은 어떤 활동에 쉽게 몰두하고 활동 그 자체를 즐기며, 특히 복잡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동기화되는 성격(Csikszentmihalyi, 1990)을 의미한다. 이화선(2010)은 자기목적적 성격을 기술하고 있는 관련문헌들의 고찰을 통해 플로우 메타스킬(도전과 능력의 균형), 호기심과 다양한 관심, 내적동기, 어려운 과제 선호, 과제 집착력 등 5가지 요인을 자기목적적 성격의 하위요인으로 규명하고 자기목적적 성격 척도를 개발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호기심·다양한 관심과 내적동기가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진 4요인 23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목적적 성격 척도를 타당한 조사도구로 제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화선(2010)이 개발한 자기목적적 성격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다. 자기목적적 성격 측정 도구는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0.883으로 나타났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하위영역별로 변별력이 좋지 않은 3개 문항(12번, 16번, 21번)을 삭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개의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20개 문항의 신뢰도는 .870으로 나타났다.

## (2)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현주·이미나·최인수(2008)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orean Well-Being Scale of Adolescent: K-WBSA)를 사용하였다. K-WBSA는 Keyes(2005)가 개발한 안녕감 척도(Subjective Well-being Scale) 12문항을 번안한 것으로 정서적 안녕감(emotional well-being),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의 3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 )'라고 얼마나 자주 느꼈습니까?'라는 물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혀', '1-2번',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3번', '거의 매일', '매일' 중에서 선택하는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Cronbach's  $\alpha$  계수가 .924로 매우 양호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변별력이 좋지 않은 12번, 9번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개의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10개 문항의 신뢰도는 .922로 나타났다.

## 3)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청소년활동몰입은 청소년활동 참여자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깊게 빠져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 완전히 집중되어 활동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최적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Jackson과 Marsh(1996)가 개발한 몰입상태척도(The Flow State Scale: FSS)를 청소년활동 진행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0.960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하위영역별로 변별력이 좋지 않은 10개 문항(8번, 11번, 17번, 20번, 21번, 22번, 24번, 28번, 33번, 34번)을 삭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6개의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26개 문항의 신뢰도는 .939로 나타났다.

###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처리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한 변인들 간의 이론적 관계에 기초하여 가설적 인과모델이 경험적 자료에 비추어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모형검증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온 카이제곱치( $\chi^2$ ), 기초부합치(GFI)와 더불어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면서 명확한 해석기준을 가진 비표준부합치(NNFI)와 근사치오차평균제곱근(RMSEA), 그리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비교부합치(CFI)를 적합도지수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적합도 지수의 적합기준을 충족시키는 값을 가질 때 모델이 경험적 자료에 잘 맞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모델의 수정과정을 통해 최종모델이 확정되면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경로의 의의와 설명력(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을 검증하였다. 각 변수 간 존재하는 경로의 의의도와 설명력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추정치와 t-값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경로계수의 의의도는 유의수준 5%로 설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적합도 분석

청소년활동몰입 관련변인 간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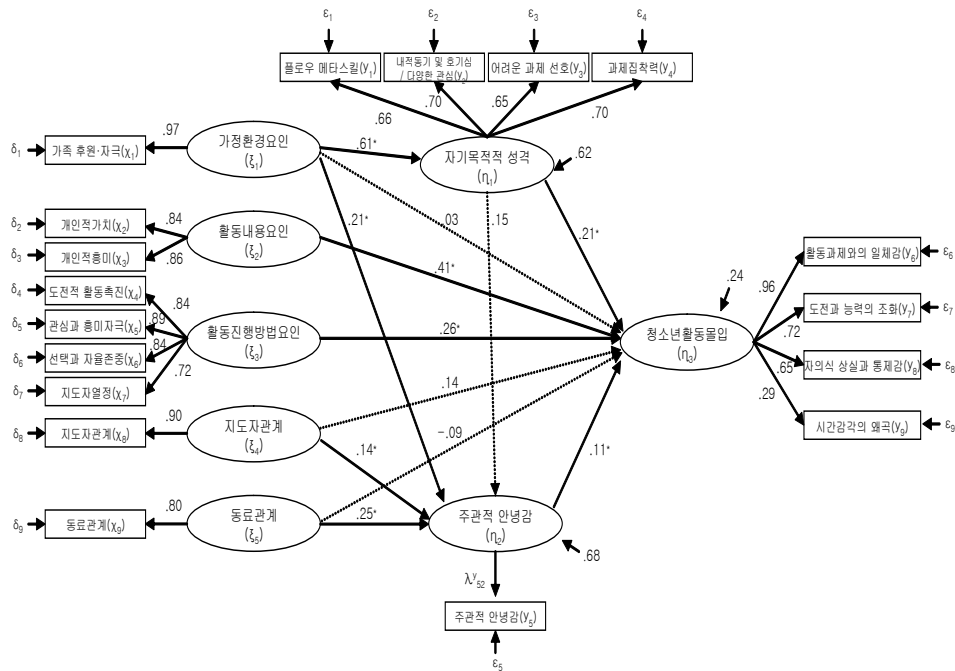
<표 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 적합도지수명 | $\chi^2(df) / p$  | GFI     | NNFI(TLI) | RMSEA   | CFI     |
|--------|-------------------|---------|-----------|---------|---------|
| 적합도 지수 | 264.151(117)/.000 | .912    | .933      | .065    | .948    |
| 적합도 기준 | $p > .05$         | $> .90$ | $> .90$   | $< .05$ | $> .90$ |
| 판정결과   | 부적합               | 적합      | 적합        | 보통      | 적합      |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값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이제곱치( $\chi^2$ )지수는 264.151( $p < .000$ ), GFI=.912, NNFI(TLI)=.933, RMSEA=.065, CFI=.948이었다. 카이제곱치( $\chi^2$ )지수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RMSEA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모델임을 판단할 수 있다. 기타 나머지 적합도 지수 GFI, NNFI, CFI 등은 모두 가설적으로 설정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chi^2$  값의 경우 표본모형오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표집크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측정 변수들의 수가 많을수록 공분산행렬 값들 간의 차이가 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chi^2$  값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록  $\chi^2$  값이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적합도가 낮다고 할 수 없으며,  $\chi^2$  값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설적으로 설정한 인과모형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chi^2$  값을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을 고려해 볼 때 양호한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가설적 모형의 경로모형(path diagram)과 경로계수의 의의도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청소년활동몰입 관련요인에 대한 가설적 모델 검증결과

## 2. 모형 수정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 인과모델에 대한 적합도 판정 결과 현실자료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기존의 이론변수를 유지하면서 자유특징수를 고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델의 간명화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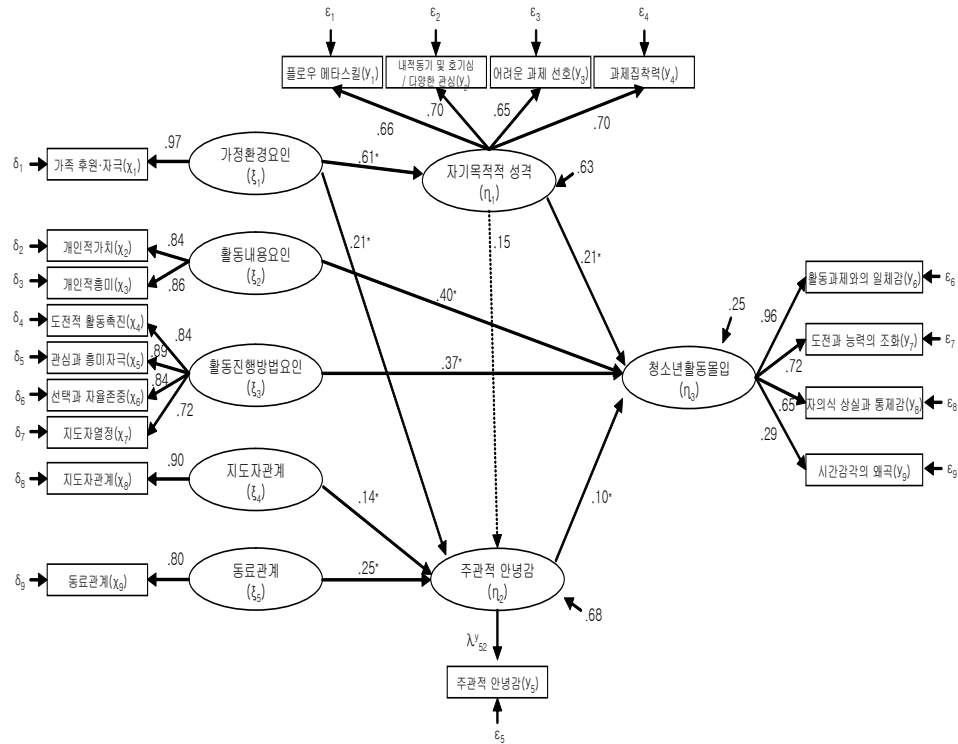
모델의 간명화를 시도하기 위해 각 경로의 고정지수, 즉 t-값을 살펴본 결과 [그림 1]의 가설적 인과모델에 포함된 경로 중 ‘가족 후원·자금(ξ 1) → 청소년활동몰입(η 3)’에서의 t-값이 0.48, ‘지도자관계(ξ 4) → 청소년활동몰입(η 2)’에서의 t-값이 1.20, ‘동료관계(ξ 5) → 청소년활동몰입(η 3)’에서의 t-값이 -1.04, ‘성격(η 1) → 주관적 안녕감(η 2)’에서의 t-값이 1.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로 나타났다( $p < 0.05$ ). t-값이 작게 나타난 경로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면서 적합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가설적 모형에서 ‘가족 후원·자극(ξ 1) → 청소년활동몰입(η 3)’, ‘지도자관계(ξ 4) → 청소년활동몰입(η 2)’, ‘동료관계(ξ 5) → 청소년활동몰입(η 3)’, ‘성격(η 1) → 주관적 안녕감(η 2)’의 경로를 제거하면서 수정한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와 같다.

<표 2> 모델 수정과정에서의 적합도지수와 판정

| 적합도지수                | 적합도기준   | 가설적모델                 | 수정모델1                 | 수정모델2                 | 수정모델3                 | 수정모델4                 |
|----------------------|---------|-----------------------|-----------------------|-----------------------|-----------------------|-----------------------|
| $\chi^2$<br>(df) / p | p > .05 | 264,151<br>(117)/.000 | 264,402<br>(118)/.000 | 265,573<br>(119)/.000 | 266,573<br>(120)/.000 | 269,743<br>(121)/.000 |
| GFI                  | > .90   | .912                  | .912                  | .911                  | .911                  | .910                  |
| NNFI(TLI)            | > .90   | .933                  | .933                  | .934                  | .935                  | .934                  |
| RMSEA                | < .05   | .065                  | .064                  | .064                  | .064                  | .064                  |
| CFI                  | > .90   | .948                  | .949                  | .949                  | .949                  | .948                  |
| AIC                  |         | 372,152               | 370,402               | 369,573               | 368,573               | 369,743               |
| 판정결과                 |         | 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4개의 경로를 제거하는 모델의 간명화를 시도하는 동안  $\chi^2$  값은 5.592 정도 증가하였고, GFI의 경우 0.002정도 감소하였지만, NNFI(TLI)의 경우 0.001정도 증가하였으며, RMSEA값은 0.001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CFI의 경우 그 값을 유지하고 있었어, 4개의 모델 모두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정모델4의 경우 수정모델3에 비해 GFI, NNFI(TLI), CFI값이 다시 감소하고 있었으며, 작은 값일수록 좋은 모델임을 의미하는 AIC 지수의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적 모델에서 4가지 경로(‘가족 후원·자극(ξ 1) → 청소년활동몰입(η 3)’, ‘지도자관계(ξ 4) → 청소년활동몰입(η 2)’, ‘동료관계(ξ 5) → 청소년활동몰입(η 3)’, ‘성격(η 1) → 주관적 안녕감(η 2)’)을 제거한 수정모델4 보다 가설적모델에서 3가지 경로(‘가족 후원·자극(ξ 1) → 청소년활동몰입(η 3)’, ‘지도자관계(ξ 4) → 청소년활동몰입(η 2)’, ‘동료관계(ξ 5) → 청소년활동몰입(η 3)’, ‘성격(η 1) → 주관적 안녕감(η 2)’)을 제거한 수정모델3이 간명하면서도 경험적 자료에 더 잘 부합하는 모델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수정모델3을 최종모델로 결정하였으며 최종모델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청소년활동몰입 관련요인에 대한 수정모델 검증결과

### 3. 수정모형 변수 간 인과관계 검증

수정모형내에서 변수간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는 앞의 [그림 3]과 같으며, 각 변인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및 변인군별(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설명량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청소년활동몰입 관련변인들 간의 효과

| 경로유형        | 경로                            | 직접<br>효과 | 간접<br>효과 | 전체<br>효과 | 전체<br>설명량 |
|-------------|-------------------------------|----------|----------|----------|-----------|
| 독립변인→ 매개변인1 | 1. 가정환경요인(ξ1) → 자기목적적 성격(η1)  | .61*     | -        | .61*     | .37       |
| 매개변인1→매개변인2 | 1. 자기목적적 성격(η1) → 주관적 안녕감(η2) | .15      | -        | .15      |           |
| 독립변인→ 매개변인2 | 1. 가정환경요인(ξ1) → 주관적 안녕감(η2)   | .21*     | .09*     | .30*     |           |
| 독립변인→ 매개변인2 | 2. 지도자관계(ξ4) → 주관적 안녕감(η2)    | .14*     | -        | .14*     | .35       |
|             | 3. 동료관계(ξ5) → 주관적 안녕감(η2)     | .25*     | -        | .25*     |           |
|             |                               |          |          |          |           |
| 매개변인→ 종속변인  | 1. 자기목적적 성격(η1) → 청소년활동몰입(η3) | .21*     | .01*     | .22*     | .75       |
|             | 2. 주관적 안녕감(η2) → 청소년활동몰입(η3)  | .10*     | -        | .10*     |           |
| 독립변인→ 종속변인  | 1. 가정환경요인(ξ1) → 청소년활동몰입(η3)   | -        | .16*     | .16*     |           |
|             | 2. 활동내용요인(ξ2) → 청소년활동몰입(η3)   | .40*     | -        | .40*     |           |
|             | 3. 활동진행방법요인(ξ3) → 청소년활동몰입(η3) | .37*     | -        | .37*     |           |
|             | 4. 지도자관계(ξ4) → 청소년활동몰입(η3)    | -        | .01*     | .01*     |           |
|             | 5. 동료관계(ξ5) → 청소년활동몰입(η3)     | -        | .02*     | .02*     |           |

주1: - 는 수정모델에서 ‘해당 없음’을 의미함

주2: \* p < .05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자기목적적 성격 및 주관적 안녕감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유의 있는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자기목적적 성격의 청소년활동몰입에 대한 경로계수(표준화 회귀계수)는 .21( $p < .001$ )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안녕감의 청소년활동몰입에 대한 경로계수(표준화 회귀계수)는 .10( $p < .05$ )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자기목적적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자기목적적 성격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있는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부정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자기목적적 성격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5, p = .063$ ). 따라서 자기목적적 성격은 주관적 안녕감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가정환경요인은 자기목적적 성격에 의의 있는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가정환경요인의 자기목적적 성격에 대한 경로계수(표준화 회귀계수)는 .61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넷째,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가정환경요인, 지도자관계 및 동료관계는 주관적 안녕감에 의의있는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각 변수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가정환경요인은 .21( $p < .05$ ), 지도자관계는 .14( $p < .05$ ) 그리고 동료관계는 .25( $p < .01$ )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가정환경요인과 활동과제특성요인(활동내용요인, 활동진행방법요인, 지도자관계, 동료관계)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의의있는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각 변수들의 활동몰입에 대한 경로계수(표준화 회귀계수)들을 살펴보면 활동내용요인은 .40( $p < .001$ ), 활동진행방법요인은 .37( $p < .001$ )로 나타났으며, 지도자관계와 동료관계는 청소년활동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참여자가 경험하는 활동의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흥미롭고 가치있게 인식될 수 있도록, 활동진행 과정에서 도전적 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고, 청소년들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할수록, 그리고 지도자가 열정적으로 지도할수록 청소년활동 참여 과정에서 몰입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가정환경요인은 자기목적적 성격 및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로 하여 활동몰입에 의의있는 간접효과를 가지며, 지도자관계 및 동료관계는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로 하여 활동몰입에 의의있는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긍정되었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가정환경요인은 .16( $p < .05$ ), 지도자관계와 동료관계는 각각 .01( $p < .05$ )과 .02( $p < .05$ )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목적적 성격 및 주관적 안녕감은 청소년활동몰입에 대한 효과를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활동몰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활동 참여자의 자기목적적 성격 및 주관적 안녕감과 청소년활동몰입의 관계, 가정환경요인과 자기목적적 성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활동내용요인 및 활동진행방법과 청소년활동몰입의 관계, 그리고 지도자관계 및 동료관계와 주관적 안녕감 및 청소년활동몰입의 관계 및 구조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내용요인(개인적가치와 개인적흥미)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유의한 정적영향( $\beta=.40$ ,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상황에서 학생들은 흥미가 있을 때 잘 하고자 하고, 흥미가 없을 경우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려 하며(이성진 외, 2008), 학습과제에 대한 중요성이나 유용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더 깊게 몰입하고 높은 성취를 보인다는 선행연구(Cole et al., 2008)의 결과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상황에서 실증한 것이다. 또한 활동내용요인(개인적 흥미와 개인적 가치)이 청소년활동몰입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김진호, 2008)의 결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과정에서 청소년활동몰입 증진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활동과제가 자신의 흥미에 부합될 뿐 아니라 자신의 갖고 있는 미래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활동진행방법요인(도전적 활동촉진, 관심과 흥미자극, 선택과 자율존중, 지도자열정)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7$ ,  $p<.001$ ). 이러한 결과는 몰입경험이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일어나기도 하지만 몰입경험이 일어나기 위해서 경험하는 활동이 일련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Csikszentmihalyi(1990)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달리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청소년, 프로그램 지도자 그리고 운영자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활동몰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활동진행과정 내내 청소년들의 활동참여를 촉진하고, 관심과 흥미를 자극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선택과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지도가 필요하며,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자체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일 역시 몰입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자기목적적 성격은 청소년활동몰입에 유의한 정적영향( $\beta=.21$ ,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몰입의 개인차를 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 즉 자기목적적 성격이라는 Csikszentmihalyi(1975; 1988; 1990)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기목적성 정도에 따라 몰입을 경험하게 되는 높은 도전과 높은 기술 상태를 다르게 인식하고(Hektner, 1996; Abuhamd, 2000), 자기목적적 성격이 학습몰입과 관계가 있다(이화선, 2010)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몰입이론에서 가정하는 자기목적적 성격과 몰입과의 관계는 청소년활동몰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기목적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청소년활동몰입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도자관계와 동료관계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활동몰입에 간접효과(지도자관계:  $\beta=.01$ , 동료관계:  $\beta=.02$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교육상황에서 교사의 자율성지지가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사회적 지원과 신뢰가 청소년들의 행복수준을 높이고 수업참여행동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문은식, 2007; Midgley et al., 1989; Skinner & Belmont, 1993)의 결과와 친구들의 지지가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ee-Lee Chou, 1999)를 실증하는 것이다. 학교교육 상황에서 교사 및 급우들과의 관계로 형성되는 학급풍토가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민상기·나승일, 2007; 이숙정, 2010)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활동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지도자관계 및 친구관계는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청소년활동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 참여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몰입의 개념을 청소년활동상황에 도입하여, 청소년활동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들 요인 간의 구조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청소년활동몰입의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요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밝힘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적극적인 참여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특히 기존의 청소년활동 관련 연구들이 청소년활동의 만족도나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한정되어 있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몰입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자기목적적 성격이라는 개인특성 요인과 활동과제 특성요인 이외에도 청소년활동참여자의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요인을 다룸으로써 몰입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몰입이론에서는 과제의 난이도와 개인의 능력의 함수관계로 몰입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과정에서 참여자의 몰입 경험을 개인의 특성과 활동과제의 특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긍정적 감정인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변인으로 포함시킨 가설적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주관적 안녕감은 청소년활동몰입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행동은 인지나 동기적 요소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 반응이 결합되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가정환경요인은 청소년활동참여자의 자기목적적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활동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도자관계와 동료관계 역시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청소년활동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몰입 관련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정환경요인 및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파악한 것이자, 청소년활동 참여과정에서의 지도자와의 긍정적 관계의 중요성을 실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활동참여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활동의 실천 현장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흥미와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진정한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실행활동속에서 의미있는 활동에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조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김진호, 2004). 활동내용요인(개인적

흥미, 개인적가치)이 청소년활동몰입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 활동에서 다루는 내용의 적절성이 청소년활동몰입과 활동결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지속적인 요구분석을 통해 공급자위주보다 참여자위주의 내용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운영 초기단계에서는 활동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청소년활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참여청소년들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몰입을 위해서는 활동진행방법적 측면의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활동진행방법이 청소년활동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청소년지도자의 지도방법(도전적 활동촉진, 관심과 흥미자극, 선택과 자율존중, 지도자열정)에 따라 청소년활동몰입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한 지도자의 구체적인 지도행위는 어떤것인지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실제 이러한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은 청소년활동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활동몰입을 위해서는 자기목적적성격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몰입이론에 따르면 후원과 자극 모두를 제공하는 '복합적 가족환경(Complex family)'이 성격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관심과 지지 그 자체가 청소년활동몰입이나 활동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목적적 성격을 통해 청소년활동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참여과정에서 청소년활동몰입과 활동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가정환경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구성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또한 자기목적적 성격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청소년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도자관계와 동료관계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활동몰입에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 청소년지도자가 상호 인격적인 친교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활동 과정 내내 프로그램 참여자 상호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을 때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청소년활동몰입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는 활동프로그램을 직접 지도하는

순간 뿐 아니라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휴식 및 자유시간에도 청소년들 간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두고 긍정적인 심리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 덧붙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학생으로 한정되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청소년 청소년활동 상황에서의 청소년활동몰입 이해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몰입이론이 가정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개별 활동프로그램들이 의도하는 결과변인들을 포함하거나, 청소년활동 운영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기타 변수들, 예컨대 역량과 같은 결과변인들을 활용하여 청소년활동몰입이 청소년활동이 의도한 목적을 의미 있게 매개하는지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활동몰입을 일회적으로 측정한 결과로 청소년활동몰입 모델을 검증하였다는 점은 변화무쌍한 청소년활동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찰법 등의 몰입측정방법을 활용한 질적연구를 통해 청소년활동 전 과정에서 청소년활동몰입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청소년활동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는 후속 연구도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권일남 · 이미리 · 김진호 · 안종길 · 김호순 · 허성욱 · 이수희(2007). 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 만족도 조사 및 효과성 측정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김민성(2009). 학습상황에서 정서의 존재: 학습정서의 원천과 역할. 아시아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pp. 73-98.
- 김진호(2003). 성인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호(2004). 제3장 자율참여 원리,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지도방법론(pp. 55-79).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진호(2008).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몰입경험 결정요인 구조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 제4호, pp. 1-24.
- 김홍순(2006).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및 생활사건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정희(2010). 고등학생의 성취목표와 심리적 안녕감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매개변인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식(2007).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되는 사회, 동기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1권 제2호, pp. 459-475.
- 민상기 · 나승일(2007).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몰입과 학급풍토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제3호, pp. 45-68.
- 박근수(2007). 일몰입에 대한 이해: 한국형 일몰입 척도 개발 및 타당화와 일몰입의 선행변인 및 결과변인 규명.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은주 · 최영숙 · 최성열(2010). 청소년이 지각한 학급풍토, 가정의 도전과 지원, 학습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학습몰입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3호, pp. 707-732.
- 이명순(2006). 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현(2003). 몰입수준의 변화가 수학성취도 및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진 외(2008). *교육심리학서설*(제3판). 서울: 교육과학사.
- 이숙정(2010).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학생관계와 학급풍토 및 학습 몰입의 경로 분석. *초등교육연구*, 제23권 제4호, pp. 207-227.
- 이은주(2001). 몰입에 대한 학습동기와 인지전략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5권 제3호, pp. 199-219.
- 이화선(2010). *학습플로우경험의 증진방안 연구: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과 플로우 채널 탐색을 기반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 이미나 · 최인수(2008).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WBSA)의 타당화 및 삶의 질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2권 제1호, pp. 301-315.
- 임미향 · 박영신 · 김의철(2006).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사회적 지원, 자기 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제15권 제1호, pp. 53-67.
- 최윤진(1992).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과제,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지도론*(pp. 28-41).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Apps, J. W.(1996). *Teaching from the heart*. Malabar, FL: Krieger.
- Chou, K. L.(1999).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Hong Kong Chines young adul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 3, pp. 319-331.
- Cole, J. S., Bergin, D. A. & Whittaker, T. A.(2008). Predicting Students Achievement for Low Stakes Tests with Effort and Task Valu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33, pp. 609-624.
- Costa, P. T. & McCare, R. R.(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4, pp. 296-308.
- Cruickshank, D. R., and others.(1980). *Teaching is tough*.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Csikszentmihalyi, M.(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 Jossey Bass.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최인수역, 몰입,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서울: 한울림.
- Csikszentmihalyi, M.(1997). *Finding Flow*. 이희재 역, 몰입의 즐거움. 해냄출판사.
- Csikszentmihaly, M., & Schneider, B.(2000). *Becoming adult: How teenagers*

- prepare for the world of work. 이희재 역,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서울: 해냄출판사.
- Heady, B. & Wearing, A.(1989).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Toward a dynamic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4, pp. 731-739.
- Lam, S-F., Pak, T. S., & Ma, W. Y. K.(2007). Motivating instructional contexts inventory. In P. R, Zelick(Ed), *Issues in the Psychology of Motivation* (pp. 119-136). Huppauge, NJ: Nova Science.
- Midgley, C., Feldlaufer, H. & Eccles, J.(1989). Student/teacher relations and stititudes toward mathematics before and after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Vol. 60, pp. 981-992.
- Rathunde, K.(1988). Optimal experience and the family context. In Csikszentmihaiya, M. & Csikszentmihaiya, I.(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pp. 342-363).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thunde, K.(1989). The context of optimal experience: An exploratory model of the family. *New Ideas in Psychology*, Vol. 7, pp. 91-99.
- Rathunde, K.(1996). Family context and talented adolescents' optimal experience in school-related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6, pp. 605-628.
- Rathunde, K.(2001). Family context and the development of undivided interest: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y support and challenge and adolescents' quality of experien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Vol. 5 No. 3, pp. 158-171
- Skinner, R. A., & Belmont, M. J.(1993). Motivation in the classroom: Reciprocal effects of teacher behavior and student engagement across the school yea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5 No. 4, pp. 571-581.
- Stipek, D. J.(1993). *Motivation to learn: From theory to practice(2nd ed.)*. Needhan Heights: Allyn and Bacon.
- Wentzel, K. R., & Watkins, D. E.(2002). Peer-relationships and collaborative learning as contexts for academic enablers. *School Psychology Review*, Vol. 31 No. 3, pp. 366-377.

## ABSTRACT

### A Structural Analysis of Related Variables to Youth Activity Flow

Park, Jung-Bae\* · Song, Byeong-Ku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and evaluate a structural model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s among factors that affect the youth activity flow of participants in youth activity program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60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a youth activity program managed by a youth center.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used was proven through a preliminary research Exercise. Out of a total of 460 questionnaires, 417 were collected, invalid or otherwise inappropriate questionnaires were exempted and 301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research. AMOS 4.0 was used to examine the covariance and the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5%.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amily environment was found to statistically influence autotelic personality( $\beta=.61$ ). Moreover,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ammates( $\beta=.25$ ), family environment( $\beta=.25$ ), an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ne's leader( $\beta=.14$ ) directly affected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the family environment did not directly affect subjective well-being. Additionally, the activity content factor( $\beta=.40$ ), the activity method factor( $\beta=.37$ ), autotelic personality ( $\beta=.21$ ) and subjective well-being( $\beta=.10$ ) directly affected the level of the participants' youth activity flow. The factor of family environment ( $\beta=.16$ ), autotelic personality ( $\beta=.01$ )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 and teammates ( $\beta=.02$ ) indirectly affected the level of the participants' youth activity flow.

**Key Words** : youth activity, youth activity flow, autotelic personality, subjective well-being

투고일 : 9월 15일, 심사일 : 10월 31일, 심사완료일 : 10월 31일

---

\* Soonchunhyang University

